

# “호남의 정치적 위상 회복해 집권의 길 열겠다”

## 민평당 지도부 광주 총결집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등 지도부는 12일 광주를 찾아 ‘호남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최근 평창에서 불어 온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는 유일한 정당으로서 호남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임명하고 당직자 인선 작업에 나서는 등 조직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조배숙 대표는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 조 대표는 “책임은 부정하고 역사

## 5·18묘지 참배후 최고위원회의

### 광역단체장 최소 1석 목표

### “힘 모아달라” 민심잡기 나서

를 왜곡하는 세력이 처벌받지 않는 한 호남의 고립은 지속할 것”이라면서 “우리 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는 광주 시민이 바라는 진상 규명을 규정한 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조 대표는 “호남정신의 전국화를 위해서는 먼저 헌법 전문에 그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면서 “민평당은 호남정신

의 전국화를 통해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일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전국 지역위원회의 인선을 마친 민평당의 지방선거 준비도 본격화했다.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조만간 선거 관련 조직을 인선할 계획이며 민평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최소 1석 이상의 광역단체장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윤영일 최고위원은 “5·18 진상규명은 정의와 상식의 문제이지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2월 임시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민평당 지도부는 이날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전정배 최고위원은 “민평당을 ‘호남당’ ‘호남자민련’으로 폄하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지역패권주의에 물들어 호남을 깔보거나 들러리 세우려 하지 않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민평당은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해 집권의 길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변인도 “민평당이 굳건히 자리매김할 때 호남이 주도하는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호남의 권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민평당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현역의원 차출 없다는데... 민평당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누가?

### 외부인사 영입 등 난항 예상

### 박지원 “출마 아직 결정 안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차출 불가 검토’ 발언을 함에 따라 향후 민평당의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선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오는 6월 지방선거 현역 국회의원 차출 문제와 관련,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히면서 사실상 ‘현역 불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민평당의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검토 배경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14개 의석을

지나 민평당이 아직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의석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무대고 현역 의원들을 차출하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대표가 “소속 의원이 14명으로 원내 교섭단체(20석) 구성이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 한 석이 아쉬운 마당에 현역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힌 점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초 광주·전남에서는 국민의당 분당 사태 후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에,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전정배 의원이나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조선의 김경진 의원이 광주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

다. 하지만, 교섭단체 구성에 발목이 잡혀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평당에서 현역 중진 의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원내 인사와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를 선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해서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이 몇 명 있어 공천 방식 등을 논의 중이고, 설 연휴를 계기로 밀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지사 출마설이 돌았던 민평당 박지원(복교)의원은 “아직 출마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도 고심 중임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광주일

보와 통화에서 “조배숙 대표께서 지방선거 현역 의원 차출 불가를 언급한 것은 민평당이 원내 한 석이라도 더 빨리 채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의 전남지사 출마설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 여름부터 여러 생각으로 호남 일원을 순방한 사실은 있지만, 지금까지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도 아니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적도 없다”면서 “저의 거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은 유호하다는 뜻을 비쳤다. /최권일기자 cki@

## 전남 관가 ‘대행’ 전성시대

### 지사 공백 길어지고

### ‘빅4’ 가운데 2명 공석

### 정무부지사도 사퇴 전망

전남 관가(官家)가 ‘대행’ 전성시대다. ‘빅4’ 가운데 이미 2명이 공석이고, 조만간 1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공백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수장인 전남지사가 공석이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발탁으로 전남지사는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 문금주 기획조정실장이 최근 행정안전부로 전출되면서 주순선 정책기획관이 기획조정실장 법정대리를 하게 됐다. 후임 임명에는 인사 검증 등 절차가 필요해 이달 말까지는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

우기종 정무부지사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가 점쳐진다. 우 부지사가 공직에서 사퇴하면 전남도는 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 이른바 ‘빅 4’ 가운데 지사 권한대행을 맡은 행정부지사만 남게 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도 비어 있다. 지난해 10월 권오봉 전 청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뒤 여태 후임을 찾지 못했다.

전남도 산하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대행의 대행’ 체제다. 지난달 23일 양지문 전 사장이 퇴임한 뒤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최근 행정안전부로 전출되면서 김정선 건설도시국장이 다시 대행을 맡게 됐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원장이 장기 병가 중이다. 원장 직계 수위는 다음 달 초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만,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된 전남여성플라자 원장은 지방선거 때까지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관가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예산 확보의 중요한 시기에 핵심 공직자들이 비어있어 조직에 힘이 빠지고 적극적인 행정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공백 사태가 산하 출연·출자기관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돼 지역관가가 어수선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바른미래당 강령에 ‘진보·햇볕’ 담을까

### 합당 전날까지 노선 신경전

### 安 “지방선거 역할에 최선”

### 劉 “선거 이후 대표직 사퇴”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으로의 공식 합당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정세성과 노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전날 통합추진위(통추위) 회의와 이날 오후 수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신당의 당헌·당규, 정강·정책을 포함해 합당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상당 부분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은 바른미래당의 강령에 담을 이념 노선 문제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오히려 폭넓은 지지 확보를 위해 ‘합리적 중도’ 대신 ‘합리적 진

보’가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 분야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포용정책’을 강령에 담고 있는 국민의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바른미래당에 어떤 형태로도 반영하려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제3의 길’을 내세우면서 이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당직과 사무처 인력, 당사 등을 포함한 당의 재산 처분 문제도 여전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승리와 통합당의 미래를 위해 다른 역할이 주어지면 열심히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6·13 전국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직후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업역 | 전남대 지질학과 졸,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